

다이소 '토종기업'으로 새 출발... 일본 꼬리표 떼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창업한 박정부 아성다이소 회장은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 1000원~3000원의 합리적인 가격, 가격 대비 고품질, 다품종 물건을 팔면서 연 매출 3조 원대 기업을 일군 '다이소 신화'로 불린다.

전국 1500여 개 매장에 하루 100만 명이 찾고 1시간에 42만 개씩 상품이 팔리며 매일 600종의 신상품이 나오고 2030이 좋아하는 라이프스타일습 1위에 꼽히는 다이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지난해 매출액 3조4604억 원, 영업이익 26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5%, 9.4% 상승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박 회장은 한양대 경영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구로공단에 있는 전구 생산 업체 풍우실업에 다니다 공장장 시절 회사 노조 결성과 함께 파업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위기관리 능력이 없



다는 질책에 모멸감을 느껴 입사 15년 만에 사표를 냈다.

이후 동생이 하던 일본 해외연수 사업을 돕다 아성다이소의 전신인 한일맨파워를 설립했다. 초기 한일맨파워는 국내 기업 임직원의 일본 연수와 세미나를 지원하는 업체였다. 이후 주변 지인 소개로 무역업을 병행했고 일본 다이소산업을 소개받으면서 유통업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일본 길거리를 걸으며 사업군을 고민하던 중 100엔 습이 눈에 띄었다. '미국의 달

리 습, 영국의 파운드 습이 있는데 한국에는 왜 1000원 습이 없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에 1997년 5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아스코이브프라자'라는 생활용품 가게를 열고 균일가 사업에 발을 들였다.

순수 국내 자본 회사였던 다이소(당시 아스코이브프라자)는 2001년 11월 거래처 관계였던 100엔 습 다이소를 운영하는 일본의 균일가 상품 유통회사 다이소산교(大創産業)로부터 약 4억 엔(당시 약 38억 원)을 투자 받아 일본과 연관있는 기업이 됐다. 이후 대창의 일본어 발음인 '다이소'를 사용하면서 서서명을 다이소아성산업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다이소산교에 투자 대가로 자본 약 34%를 떼어주게 된다. 이때 일본 기업과 협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관련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아성다이소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벌어질 때마다 "일본 다이소와는 자본투

자 이외에 로열티 지급이나 인적 교류, 경영 참여 등의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 다이소가 한국 토종 기업으로 거듭났다. 아성다이소의 모회사 아성HMP가 2대 주주인 일본 다이소산교의 지분 전량을 인수하면서다. 다이소산교가 경영 참여 및 배당금 확대 등을 꾸준히 요구하자 아성다이소는 지난해 12월 다이소산교 지분 전량을 약 5000억 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아성다이소의 지분구조는 아성HMP의 최대주주인 박정부 회장이 50.02%, 다이소산교가 34.21%를 보유했지만 이후 아성HMP가 다이소산교의 보유 지분 34.21%를 모두 매입하면서 아성HMP의 보유 지분율이 84.23%로 늘었다.

여기에 박 회장의 특수관계자인 차녀 박영주 씨가 13.9%, 장녀 박수연 씨가 1.87%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을 모두 합치면 아성다이소는 박 회장 일가가 100% 소유가 됐다.



박정부

현)아성다이소 회장



아성다이소

국내 기업이 된 아성다이소는 완전한 국내 균일가 생활용품점 브랜드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의 부동산 재력이 관심이다. 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TA파트(사진) 한 호실을 2017년 5월 45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해당 호실은 공급면적 327.68㎡(약 99.12평)·전용면적 244.66㎡(약 74평) 규모로 최근 매매가는 올해 1월 거래된 73억3000만 원이다.

국내 최초의 최고급·초고층 주상복합아

파트로 불리는 단지는 최고 66층, 4개동, 1297가구로 이뤄졌다.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이 만나는 도곡역 역세권 입지로 주거·쇼핑·의료·금융 등 일상생활을 단지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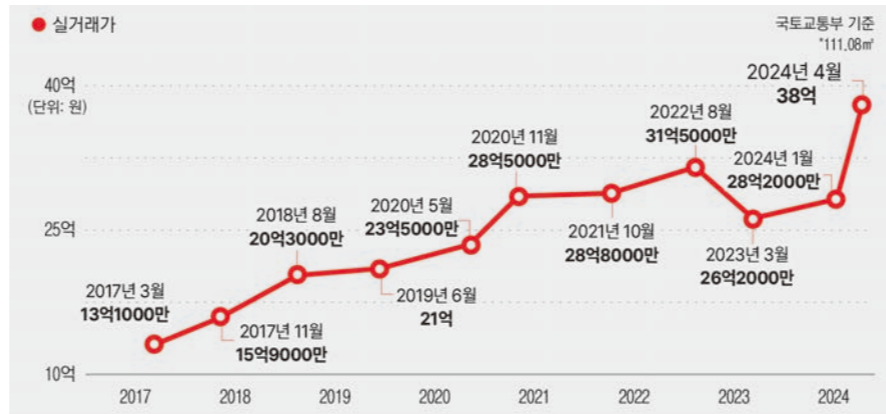
또 강남의 대표적인 학구인 개포고·중대부고·숙명여고 등이 도보권에 있고 차량으로 선릉로·인주로·양재나들목(IC) 진입이 쉬운 것도 장점이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삼성아파트



도곡렉슬



삼성타워팰리스차



홍원학

현)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고려대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삼성생명 공채로 입사한 뒤 삼성전자 경영전략팀 상무, 삼성생명 인사팀장 상무·특화영업본부장 전무·전략영업본부장 부사장·FC영업1본부장 부사장,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본부장 부사장 등을 거쳐 2021년 12월 사장에 올랐다. 삼성화재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낸 그는 2023년 당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 1조6433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7% 늘어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삼성생명 신입 대표로 선임됐다. 올해 삼성생명 고객패널 도입 20주



년을 맞아 고객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홍 대표는 "삼성생명은 고객패널을 20년간 운영하며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 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으로부터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고객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인

현)더블랙레이블 대표

정경인 더블랙레이블 대표는 서울대 재료공학부를 졸업하고 태산LCD와 한국HP(현 휴렛팩커드)를 거쳐 2010년 LB인베스트먼트에 합류해 펠어비스·네시삼십삼분·카카오게임즈·엔터메이트·팩토리얼 게임즈·코코모 등 여러 게임 회사에 전문 투자하는 투자심사역으로 이름을 날렸다. 펠어비스 투자를 이끈 인연으로 김대일 펠어비스 창업자가 그를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하면서 펠어비스에서 투자유치·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펠어비스의 대표 게임으로는 '검은사막' '채도우 아레나' 등이 있다. 그중 '검은사막'은 압도적인 그래픽과 방대한 콘텐츠로 게이머에게 큰 충



격을 안긴 바 있다. 펠어비스를 글로벌 게임사로 성장시킨 뒤 2022년 3월 펠어비스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YG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로

설립된 회사인 더블랙레이블 대표로 취임했다. 더블랙레이블은 그룹원타임 출신 프로듀서(PD) 테디(본명 박홍준)가 설립한 회사다.



서정선

현)마크로젠 회장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은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국립보건원 분자유전학실 연구원, 서울대 암연구소 분자생물학실 실장, 서울대 의학연구원 유전자분석연구소 소장, 마크로젠 대표이사, 한국유전체학회 부회장,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1983년부터 34년간 서울대 의대 교수를 지냈으며 2018년 정년 퇴임 후 서울대 분당병원 석좌연구교수로 재직했다. 180편 이상의 SCI급 논문을 발표했고 총 피인용 횟수가 1만2000번이 넘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초과학자로 평가받는다. 1997년 서울대 교수 재직 중



유전체 의학 연구소를 모태로 창업한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 마크로젠은 한국 최초 코스닥 상장 벤처로 시작해 전세계 160개국 1만8000여 명의 고객에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정밀의학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새로운 에너지미래, Go with KEA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물과 어디서든 쉽게 충전하는 친환경 자동차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새로운 미래,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열어갑니다.